

피동표현의 사용 동기와 공손 전략의 두 양상

백 인 영*

I. 서론

본고는 먼저 피동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동표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피동에 대해 국어학계의 연구가 이미 충분히 축적되었음에도 피동의 정의와 그 범위 설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본고는 피동표현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떠한 동기에 의해 선택되어 사용되는지를 면밀히 따져봄으로써 의미·화용 범주로서 피동이 어떤 양상을 보이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 것이다.

어떤 언어표현의 사용 동기를 밝힌다는 것은 곧 그 표현의 의미를 치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어떤 언어의 사용자가 어떤 언어표현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구조화하여 머릿속에 소유하고 있는지는 그것이 실제 발화 상황에서 형식을 입어 표현되었을 때에야 알 수 있다. 심지어 그 표현이 문장 구성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이 아니라면 더더욱 해당 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 글의 논의 대상인 ‘피동’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본고는 피동표현의 사용 동기를 적극적으로 논하는 것을 통해 한국어 피동의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해 보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

II. ‘피동’ 개념에 대한 검토

1. 통사 범주 ‘피동’

피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통사적 접근에 바탕을 둔 것이 많았다. ‘어떤 행위의 대상(피동주)이 주어로 나타나고 행위의 주체(능동주)가 부사어로 나타나거나 생략된 문장으로, 대당하는 능동문을 상징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피동에 대한 통사적 정의는 분명 피동을 통사 구조의 변화로 특징짓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전통문법시대의 정의에서 시작되어 그 후 연구들로 이어진 것이며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된다.

(1) 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나.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¹⁾.

(1)은 가장 단순한 구조의 능동문과 피동문 대응을 보여준다. 임흥빈(1978: 101)은 이에 대해 “국어의 능동과 피동을 대표하는 문례로, 태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 즉 동일한 일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 말하였다. 이때 피동문은 능동문과의 대응관계를 바탕으로 정의된다. 명시되진 않았지만 이때의 대응관계는 통사·의미적 대응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동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논의인 남수경(2011: 12)에서도 피동은 통사 범주로 다루어진다. 다음은 남수경(2011: 37)에서 제시한 피동의 원형적인 특성이다.

(2) 가. 대응되는 능동문이 존재한다.

나. 능동문의 주어, 즉 행위자는 피동문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사격어로 나타난다.

다. 능동문의 목적어, 즉 피동자는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나타난다.

라. 형태론적 표지를 지닌다.

(남수경 2011: 37)

1) 임흥빈(1978)에서의 단어 ‘순경’을 ‘경찰’로 대체하였다.

이때 (2가)는 (1)에 대한 임홍빈(1978)의 설명과 상통하는 것이며 (2나)와 (2다)는 보다 본격적으로 피동문을 그 통사적 특성으로 파악하는 논의이다. 피동문은 문장구조 내 행위자의 강등과 피동자의 승격으로 설명된다. 종합하면, (2)에서 피동문은 능동문과 어떤 대응 관계를 보이며, 주어와 목적어 요소의 자리 이동이 있고, 서술어 구성에 형태론적 표지를 가지는 문장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1나)는 전형적인 피동문이라 판단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2라)에서 피동문을 서술어 구성에의 특성, 즉 서술어에 나타나는 형태론적 표지로 특징지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떤 문장이 행위를 입음의 의미를 가지더라도 서술어에 피동의 형태적 표지가 없다면 그 문장은 피동문이 아니라고 판별된다.

하지만 피동을 통사 범주로 정의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히’계 피동사,²⁾ ‘-어지다’, ‘-게 되다’, ‘명사+되다’, ‘명사+받다/당하다/맞다’ 등 피동의 의미를 갖는 동사 구성 중 무엇까지를 피동문 구성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복잡성이 피동을 통사 범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낳기도 하였다. 다음은 기타무라(2004: 36-37)의 논의이다.

(3) 가.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나. 그는 선생님에게 칭찬 받았다.

다. 아이들은 그에게 맞았다.

(4) 가. This book was read by many people.

나. He was praised by his teacher.

다. Children were hit by him.

(5) 가. kono hon-wa ookuno hitobito-ni yom-are-ta.

나. kare-wa sensei-niyotte shoosan-s-are-ta.

다. kodomo-tati-wa kare-ni tatk-are-ta.

2)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의 대표형을 ‘-히-’로 잡은 그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고 역시 이들을 ‘-히’계 접미사가 사용된 ‘-히’계 피동문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이는 일본어 및 영어에서와는 달리 한국어에서 피동을 통사 범주로 정의하는 데에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4), (5)를 보면 일본어와 영어의 경우에는 피동문 (가), (나), (다)가 각각 동일 굴절 요소인 ‘-ed/en’, ‘-rare/are’에 의해 일률적으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세 문장은 모두 피동의 의미를 갖지만 그 형식은 접미사 ‘-히-’, 어휘 ‘받다’, ‘맞다’로 각각 다르게 실현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어의 피동을 일본어 및 영어에서와 동등한 지위로서의 문법 범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기타무라(2004)는 한국어에서 피동은 통사범주가 아닌 의미범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의미 범주 ‘피동’

피동에 대한 통사적 정의는 어떤 문장이 피동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에 매우 규격화된 기준을 제시해 준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피동이 하나의 동일한 굴절형태로 실현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피동을 통사 범주로 보는 것이 정말 타당한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품게 된다. 그렇다면 피동을 의미 특성으로 정의하는 경우들은 어떠한지 다음의 논의들을 통해 살펴보면 서, 피동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좋을지를 더 고민해보도록 하자.

- (6) 가. 남의 힘을 입어 되는 움직임 (최현배 1937/1961)
 - 나. 행동주의 가치 저하, 탈행동성 (임홍빈 1978/1998)
 - 다. 동작성의 약화, 과정성의 강화 (김차균 1980)
 - 라. 동작 또는 상태변화를 입어 그로 말미암은 상황 또는 상태에 이름의 표현(주체적 동작성의 상실 또는 과정성의 부여) (박성종 1984)
 - 마. 피동자의 주제 삼기 (이향천 1991)
- (남수경 2011: 34-35 재인용)

- (7) 주체가 스스로 행하거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인에 의해 동작이나 상태 변화를 입게 되는 것 (송현정 1994: 305)

- (8) 가. 피동작주가 존재하여, 그것이 표현의 중심이다.
- 나. 동작주도 존재하지만, 그것은 표현의 주변이다.

다. 피동작주에 대한 동작주의 동작/작용이 존재한다. (기타무라 2004: 40)

피동의 통사 특성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던 것처럼, (6)에서 알 수 있듯 피동의 의미 역시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공통되는 논의를 추려볼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 특성으로는 ‘행위자와 피동자의 가치 변화’, ‘상태변화’, ‘동작성의 약화와 과정성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7)과 (8)에서도 마찬가지로, 피동은 그 의미적 특성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즉 이들은 모두 특별한 문법적 표지나 변화과정이 없더라도, 문장이 피동의 의미 특성을 보이면 해당 문장을 피동문으로 판별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앞서 피동을 통사 범주로 파악했던 견해들보다는, 한국어의 피동문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보다 적합한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피동’을 의미 범주로 파악하면서도 그 의미를 정의하는 수준이 다소 추상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3. 표현 범주 ‘피동’

한편 화용론에서는 실제 발화 내에서 피동이 어떤 때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주목한다. 따라서 피동에 대한 담화·화용적 접근은 피동의 세부 의미들을 파악하고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피동에 대한 의미적 접근에서의 기술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기존의 화용론에서의 피동 기술과 공손표현에 대한 연구에서 다루어진 피동 표현에 대한 언급을 가져온 것이다.

(9) 행위자보다 비 행위자가 더 주제성(主題性)이 강할 때는 피동구문이 나타난다. (유동준 1983)

(10) 피동은 능동의 주어에 대한 언급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한다. (Jespersen 1924:167-168, 송현정 1994:327 재인용)

- (11) 서술어가 표시하는 사태에 대해 화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피동표현을 사용한다. (유혜령 2010)

(9)~(11)에 따르면 피동은 피행위자를 문장의 주체로 삼고자 할 때, 행위자에 대한 언급을 축소하고 싶을 때, 서술어가 표시하는 사태와 화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표현 범주이다. 여기서 피동의 의미 기능은 문장에서의 주체성의 부여, 혹은 사태에 대한 간접적 서술로 파악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피동자의 가치 변화, 동작성의 약화와 과정성의 강화 등의 피동에 대한 의미적 정의와 상통하는 것이면서도, 피동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피동을 표현 범주로 보는 이러한 접근은 실제 발화에서의 피동 표현의 사용을 살펴보는 것이기에 이 자체로 피동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제 표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피동이 어떤 의미로 자주 실현되는지, 또 어떤 형태의 피동표현이 실현 빈도가 높은 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곧 피동에 대한 어떠한 정의가 보다 타당하고, 또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정의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는 것이다.

4. 본고의 입장

이상 한국어의 피동표현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이러한 피동의 정의에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보다 통합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의미적 정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를 피동표현의 실제 사용 양상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더불어 어떠한 의미도 문장에서 특정 형식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피행위자가 주어로 실현되는 통사 특성’을 피동표현 판단의 결정적 요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2) 가. ‘피동문’이 아닌 ‘피동 표현’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나. 피동 표현에서는 피행위자가 주어로, 행위자는 문장에서 주어가 아닌 다른 성분으로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피동문’ 대신 ‘피동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즉 (12가)는 본고가

피동을 의미·표현 범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함을 의미한다. (12나)는 피동이 반드시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통사적 지위를 바꾸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으로, 피동 표현을 만드는 동사구성으로는 ‘피동’의 의미를 지니는 모든 동사구성이 인정됨을 함의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가 붙어 형성된 피동사뿐 아니라 ‘-어지다’, ‘-게 되다’, ‘명사+되다’ 구성에 의한 방식까지를 모두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³⁾

이로써 한국어의 피동표현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볼 준비가 되었다. 실제 언어 생활에서 피동표현이 어떤 의도로 사용되는지 그 사용 동기를 체계화함으로써 한국어 피동표현이 갖는 의미 특성들을 확인해보자.

III. 피동표현의 사용 동기

어떤 언어표현의 사용이 적격한 지, 적격하지 않은지는 단지 음운규칙, 문법규칙의 준수나, 올바른 어휘 사용 등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언어표현의 적격성에는 맥락, 즉 사용의 측면 또한 깊게 관여한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만을 생각해 봐도 언어표현은 분명 언어의 실제적 사용, 즉 그 의미 기능에 그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동표현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용의 측면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본고는 이를 통해 정보성뿐 아니라 공손성과도 연관되는 한국어 피동의 의미 특성을 확인할 것이다.

피동표현의 사용 동기로 정보성(informativeness)과 공손성(politeness) 두 가지를 가정하는 것은 Lakoff(1973: 296)에서 제시한 언어표현의 사용 규칙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3) 기타무라(2004)는 이와 달리 ‘-게 되-’ 구성이 복합문 구성이기 때문에 이를 피동문의 논의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명사+받다/당하다’ 구성을 ‘명사+되다’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고 보아 논의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게 되-’ 표현이 피동의 의미를 갖는 언어 표현 중에서도 그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데에 주목하여 이를 논의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반면 ‘명사+받다/당하다’의 구성은 논의의 대상인 공손성의 의미 효과를 갖는 피동표현에서 잘 나타나지 않아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13) 가. 공손할 것(Be polite.)

나. 명확할 것(Be clear.)

(Lakoff 1973: 296)

레이코프는 언어 사용 능력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언명을 설정하였는데 위에 제시된 ‘공손할 것’과 ‘명확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어떤 맥락에서의 어떤 언어표현의 사용은 화자가 특정 정보를 보다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청자의 체면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선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표현의 두 가지 사용 동기는 피동표현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피동표현은 이러한 정보성의 추구와 공손성의 추구 두 차원 모두에 걸쳐있는 것이라고 파악된다.⁴⁾ 이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한국어 피동표현의 이러한 두 가지 사용 양상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이 두 사용 동기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서로 관계되는 것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다.

1. 통보 전략: 행위자 축소, 행위 축소

화자는 청자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의 하나로 피동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피동표현의 ‘통보 전략(informative strategy)’이라 부를 것이다. 이러한 통보 전략은 크게 두 차원, ‘행위자 축소’와 ‘행위 축소’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뒤에서 곧 확인하게 될 테지만 이 두 차원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이 둘을 나눈 것은 매우 엄밀한 차원에서의 분류라고 할 수 있다.⁵⁾

4) 레이코프도 하나의 언어표현이 반드시 공손성 혹은 명확성 중 반드시 어느 하나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5) 그리고 이러한 엄밀한 의미 분류는 3.3.에서 다룰 공손 전략의 두 하위 양상과의 대응을 고려한 탓이기도 하다.

① 행위자 축소

2.1.에서 제시했던 예문 (1)을 다시 떠올려보자. 임흥빈(1978: 101)은 이에 대해 “국어의 능동과 피동을 대표하는 문례로, 태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 즉 동일한 일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하지만 논의를 진행하면서 피동문이 능동문의 논리를 반영하면서도, 행위자가 상황 혹은 결과의 한 원인으로서 제시되는 태에 그침으로서, 능동문과 그 의미에서 차이가 생김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진술은 능동문에서는 ‘잡는’ 동작의 행위자가 ‘경찰’인 사실이 정보성을 가졌다면, 피동표현이 쓰인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에서는 행위자의 문장 내 지위, 혹은 중요성이라 할 만한 것이 축소된 변화를 인식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피동표현이 행위자 축소의 의미 기능을 갖는 것은 일찍이 피동에 대한 의미적 정의에서도 언급된 것이다.⁶⁾ 즉 피동화가 문장의 주제 요소를 바꾸기 위한 책략임은 피동에 대한 전통적 논의에서도 이미 파악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14) 가. 행동주의 가치 저하, 탈행동성 (임흥빈 1978)

나. 피동자의 주제 삼기 (이향천 1991)

이향천(1991)에서는 ‘주제’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됨으로써 피동이 문장의 정보구조와 연결됨을 시사하고 있으며 임흥빈(1978)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용어 사용은 없으나 행동주의 가치 저하가 이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피동표현이 문장의 주제 요소를 바꾸는 통보전략의 하나로 간주되었던 것이다.⁷⁾

이러한 피동표현의 사용 양상을 예문을 통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6) 2.2.의 (6)에서 제시되었던 논의 중 일부를 가져와 (14)로 보였다.

7) 이러한 피동의 사용 동기를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한 논의로는 유동준(1983), 송현정(1994)을 들 수 있다. 이 중 유동준(1983: 193)의 논의를 소개하기로 한다. 이때 피동구문이 실현되는 조건은 ‘비행위자가 행위자보다 주제성이 더 강할 때’로, 피동표현과 문장의 정보 위계 사이의 관련성은 더욱 명료하게 제시된다. “행위자보다 비 행위자가 더 주제성(主題性)이 강할 때는 피동구문이 나타나고, 그 반대의 경우 즉 비 행위자 보다 행위자가 더 주제성이 강할 때는 능동구문이 나타난다.”

(15) 철수가 공을 멀리 던졌다.

(16) 공이 철수에 의해 멀리 던져졌다.

(16') 공은 철수에 의해 멀리 던져졌다.

(16'') 공은 철수가 멀리 던졌다.

여기서 (15)보다 (16)의 사용을 촉구하는 것은 행위자인 ‘철수’보다 피행위자인 ‘공’을 주제화하고 싶은 화자의 의도이다. 만약 ‘트랙 가운데에 공이 하나 있다. 이제 곧 경주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공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때~처럼 ‘공’이 계속해서 서술의 대상이 되는 맥락이라면 (16)을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데, 이는 피동표현이 통보전략으로 사용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16)에서 ‘철수에 의해’를 생략해도 문장은 여전히 문법적이며 그 의미 또한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데, 이는 피동표현에서 행위자가 의미적으로 크게 축소됨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한편 동일한 피동표현이 쓰였어도 (16)과 (16')에서 피행위자인 ‘공’이 갖는 주제성의 정도가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한국어 문장에서 정보위계가 조사의 사용과 긴밀하게 연결됨에서 기인한다. 영어나 프랑스어의 피동문이 주제화 효과를 가짐이 한국어 피동문에서보다 명료한 것은 영어와 프랑스어는 문장의 초점과 화제 요소가 어순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조사와의 결합이 문장의 정보구조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16'')은 이러한 한국어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예문이다.

즉 한국어에서는 피동화 없이도 문장에서 행위자의 의미 축소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어의 통보 전략에서의 특수성은 곧 정보의 재배치가 그 주된 사용 동기가 되는 영어의 피동표현과 달리, 한국어의 피동표현의 경우에는 또 다른 사용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3.2.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② 행위 축소

앞서 다루었던 임흥빈(1978: 101)의 예문은 ‘행위자의 축소’에 그치지 않고 ‘행위의 축소’까지를 의도했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피동표현에서 잡는 동작

의 행위자인 경찰의 중요성의 약화는 동시에 그러한 잡는 행위 자체 또한 문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만들기 때문이다. 모국어 화자라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문장을 들었을 때에는 경찰이 주인공이고, 경찰이 도둑을 잡는 행위의 장면을 떠올리지만,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의 문장을 들었을 때는 도둑이 이미 잡힌 상태인 상황을 상상할 것이다. 행위자가 문장의 주술 대상에서 밀려남으로써 결국 그 행위 자체도 축소되며, 그 결과 그러한 행위의 결과 상태만이 상대적으로 문장에서 부각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동표현에서의 행위 축소 효과는 의문문과 그에 대한 답 문장을 설정해보는 것으로도 쉽게 확인된다. (17)~(19)는 피동표현이 능동표현과 대비했을 때, ‘행위자 축소’를, 더 나아가 ‘행위 자체의 축소’를 가져오는 표현임을 차례로 보여준다.

(17) Q: 개가 뭘 찢은 거야?

A: 개가 이 사진을 찢었어.

(18) Q: 이 사진 왜 찢어졌어?

A: 사진이 바람에 찢어졌어.

(19) Q: 무슨 일이야?

A: 사진이 찢겼어.

2. 공손 전략: 행위자 은폐, 상태성 부각

3.1.에서 살펴본 피동표현의 문장의 주제 바꾸기 효과, 즉 통보 전략은 화자가 동사가 서술하는 행위의 주체로서의 자신을 밝히지 싶지 않은 경우, 피동표현의 또 다른 의미기능인 ‘의도를 가진 행위자 없애기’로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화자는 행위자로서의 자신을 문장에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어떤 행위를 그 결과 상태로서 보다 객관화시켜 전달하기도 한다.

이는 피동표현의 기본 의미인 ‘피동’과 또 다른 의미인 ‘공손’의 의미가 서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늘 함께 존재하면서 발화 상황에 따라 더 활성화

화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보게 한다. 즉 앞서 살펴본 행위자 축소와 행위 축소라는 두 가지의 피동표현의 통보전략은 이 장의 행위자 은폐와 상태성 부각이라는 두 공손 전략으로 이어지고 확장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① 행위자 은폐

어떤 행위의 행위자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만한 능력과 그럴 의도를 가진 주체로 파악된다. 따라서 문장에서 이러한 행위자의 의미적 중요성이 축소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아예 삭제되는 경우 문장이 서술하는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행위자는 문장에서 은폐된다.

(20) (어쩌다) 파일이 다 지워졌어요.

(20)이 발화될 만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나는 어제 아빠의 컴퓨터를 빌려 썼다. 아빠는 무엇을 지우지 않도록 조심하기만 한다면 컴퓨터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쓰라고 하셨다. 하지만 뭔가를 클릭한 것 같던 순간, 나는 그 한 번으로 내가 폴더 안에 들어있던 파일을 전부 지워버렸음을 알게 되었다. 다음날 아빠가 컴퓨터를 켜시곤 파일이 사라진 걸 알아차리셨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셨다. “혹시 **폴더에 있던 파일 지웠니?”’ 이러한 상황에서 파일을 지운 행위를 한 사람은 분명 화자인 ‘나’이고 화자는 그 누구보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 행위자를 밝히지 않는 (20)과 같은 문장을 발화한다. 이는 화자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자신의 ‘비의도’를 행위자를 은폐함으로써 은연중에 드러내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상태성 부각

그리고 이러한 행위자의 은폐를 통한 행위자의 의도가 삭제된 행위의 제시를 곧 문장의 초점이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의 결과 상태에 대한 서술로 이동하게 한다. 이러한 피동표현의 상태성 부각이라는 의미 효과는 이미 피동표현 ‘어지다’, ‘게 되다’의 의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파악되고 있었던 듯하다.

(21) ‘지(디)-’는 ‘상태변화’라는 본질적 의미를 가지면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피동 요소로서의 의미가 추가되었다. (이정택 2004)

- (22) ‘-어지다’ 구성과 ‘-게 되다’ 구성은 모두 ‘상태변화’라는 상적 의미를 지니며, 이 상적 의미가 피동표현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전영철 2008)

(21), (22)는 ‘-어지다’ 및 ‘-게 되다’를 ‘상태변화’의 의미를 갖는 요소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가 ‘피동표현’으로서의 쓰임으로 확장되거나 혹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행위를 입음’이라는 피동적 의미가 곧 상태성 부각이라는 (21), (22)에서 지적인 상태변화로서의 의미로 연결되고 또 이 둘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는 본고의 견해와 상통하는 것이다. 피동표현은 사태를 상태변화로 기술하면서 이를 통해 다시 동작 주체를 간접화, 은폐하는 의미기능을 갖는다.

- (23) 날씨가 추워졌다.

- (24) 감기에 걸렸다.

(23)과 (24)는 기존의 논의들에서 독특한 피동문으로 취급되던 것이다. 이들은 어떤 행위를 입어 어떤 상태에 이르는다는 피동의 의미를 갖지만, 대당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정한 피동문이라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두 문장이 동작을 입음이라는 피동의 의미를 가짐은 매우 분명하다. 즉 (23), (24)는 행위자를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동문임을 강하게 의심받지만,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오히려 문장에서 행위의 결과로서의 ‘상태변화’만이 뚜렷하게 제시되는 피동 고유의 의미효과를 잘 보여주는 경우인 것이다. 본고의 입장에서 이러한 피동표현은 행위자를 복원할 수 있는 다른 피동표현들과 다르지 않다.

물론 피동구문에서 분명 행위자가 존재하나 그 행위자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태성 부각이라는 피동표현의 사용 동기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5) 이번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25)은 (23), (24)와 달리 ‘자’ 혹은 ‘저희’가 문장에서 ‘도움을 드리는’ 그 행위자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화자는 자신이 거절 의사를 표하는 주체임을 의도적으로 은폐함으로써 도움을 드릴 수 없게 된 그 상황만을 표면에 드러낸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피동표현의 ‘행위자 은폐’와 ‘상대성 부각’이라는 의미 효과가 곧 ‘공손 전략’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문장을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화자가 곧 그 행위의 주체인 경우, 청자와 화자 사이의 관계의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선택될 수 있다. (25)의 화자는 분명 청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공손 전략으로 피동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화자는 ‘이번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어떠한 상황적 이유에 의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기술할 뿐이다.

이처럼 피동표현이 청자에 대한 어떤 배려의 표현으로써 사용될 때, 이는 공손성의 추구로 설명될 수 있다. 이때 공손성은 단지 상위자에 대한 공경뿐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⁸⁾ 다시 말해, 공손성의 추구는 단순히 청자에 대한 예의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자의 ‘체면(face)’을 위협하지 않으려는 하나의 언어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다(Brown & Levinson 1987).

이때 ‘체면’은 Goffman(1974)에서 가져온 개념⁹⁾인데, Brown & Levinson(1987)은 이러한 체면 개념을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과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으로 나누어 언어에서 드러나는 공손성을 설명하는 기제로 사용하였다. 언어에 나타나는 공손표현은 상대방부터 자신의 영역이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자 하는 ‘소극적 체면’과 상대방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8) 공손성 표현에는 일반적으로 표정과 태도 같은 비언어적 행위까지가 모두 포함되나 본고의 논의에서는 언어 행위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공손성만을 관찰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언어적 공손성은 음운, 어휘, 형태, 통사, 담화의 언어의 모든 층위에서 실현되는데 피동 표현은 이 중 형태 및 통사 층위에서 나타나는 공손 표현이다.

9) Goffman(1974)은 ‘체면’을 “대화참여자가 바라는 긍정적·사회적 가치”라 정의한다.

하는 ‘적극적 체면’의 추구를 위함이라는 것이다. 직접적인 요청이나 명령의 발화를 피하거나,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약하게 전달함으로써 대화상대자에게 가는 부담을 줄이려는 표현은 전자인 소극적 체면 추구에 해당하며, 안부 묻기, 칭찬하기 등은 적극적 체면 추구의 일종이다.

이러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 본고는 피동표현을 체면 보존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책략의 하나라고 볼 것이다. 그중에서도 피동표현은 개인이 자신의 영역이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려하는 ‘소극적 체면’의 손상을 피하려는 것과 연관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에서 이미 이러한 체면의 보호가 행위자를 은폐함으로써, 그리고 상황에 대한 상대적 해석에 초점을 부여함으로써 획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4장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피동표현에서의 공손 전략 양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체계화를 시도할 것이다.

IV. 피동표현에서의 공손 전략의 두 양상

피동표현은 사건 혹은 상황을 그 행위자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으면서, 전달한다. 행위자가 생략되면 문장에서 행위 혹은 그 결과 상태를 불러일으킨 의도를 가진 주체는 사라지므로, 그 결과의 원인은 맥락에 의해 희미하게 암시되는 데 그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자의 은폐는 특히 그 행위자가 화자인 ‘나, 우리’와 일치하는 경우 화청자 간의 관계 유지 추구와 긴밀히 연결된다.

- (26) ㄱ. Don't impose.
- ㄴ. Give options.
- ㄷ. Make a feel good-be friendly.

(Lakeoff 1973:298)

레이코프는 언어 사용 규칙으로 명확할 것과 공손할 것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공손에 관련해서는 (26)에 소개되었듯 세부적인 세 가지의 규칙을 제안하였다. 강제하지 말 것, 선택권을 줄 것, 좋은 느낌을 갖게 할 것-친근할 것이 그것이다. 레이코프는 이 세 공손성이 모든 언어에 존재할 만한 것이지만, 문화에 따라 세부 규칙 간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한국어의 공손성 양상의 특수성을 인식하면서, 한국어의 공손 전략으로서의 피동표현의 사용을 각각 ‘청자 지향’과 ‘화·청자 지향’의 두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¹⁰⁾ 한국어 피동표현은 일차적으로 청자의 체면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사용되며, 더 나아가 청자의 체면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화자 자신의 체면의 손상 또한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되어 사용될 수 있다.¹¹⁾

1. 청자 지향

Lakoff(1977)는 문장의 주어가 가지는 속성으로 ‘의지(volition)’, ‘책임(responsibility)’, ‘통제(control)’를 제시한다.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밥을 먹는’ 행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상황을 통제하며 그 결과의 책임을 지는 것은 주어인 ‘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장에서 주어가 실현되지 않으면 제시된 사태에 대한 ‘의지’, ‘책임’, ‘통제’의 속성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주체가 문장에서 사라지게 되어, 문장은 비문이 될 수 있다. 주어가 문장의 필수 성분으로 생각되는 것은 바로 주어가 가지는 이러한 의미기능과 관련된다.¹²⁾

하지만 피동표현의 경우는 다르다. 피동표현은 ‘의도적으로’ 행위에 대한 의지, 책임, 통제의 속성을 갖는 행위의 주체를 문장에서 강등시키거나 삭제한 문장으로, 행위자 주어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 ‘청자 지향’과 ‘화·청자 지향’이라는 용어는 KERBRAT-ORECCHIONI(1992)의 논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지향’의 개념을 어떻게 보는 지에 있어서는 본고와 케르브라-오레끼오니의 관점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11) 송현정(1994)는 한국어 피동표현을 ‘피해 의미의 강조적 표현’과 ‘상황에의 의존 중심적 표현’이라고 보고 이에 피동표현의 사용 이유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한국어 피동표현의 공손 전략적 양상의 일부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본고의 논의에 따르면 송현정(1994)에서 제시한 두 양상은 모두 4.2.에서 다루는 ‘화·청자 지향’에 해당하는 것이다.

12)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되면 서술되는 행위를 ‘의지적으로’ 행하거나 ‘통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 역시 드러나지 않게 된다. 가령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은 행위를 의지적으로 행하고 통제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행위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어색한 문장이 되며 어떤 맥락이 주어져야만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된다.

(27) Q: 딸기쥬 뚜껑 좀 열어줄래? 도저히 안 열리네.

A: (끄응) 열렸다! ¹³⁾

(27') A': (끄응) 열었다!

여기서 피동표현을 통해 행위의 주체가 은폐된 (27A)는 ‘나’라는 행위자 주어를 금세 생각나게 하는 (27')보다 청자를 배려한 표현이라 느껴진다. 발화 상황은 ‘대화 상대자가 딸기쥬 뚜껑을 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이와 달리 화자는 뚜껑을 따는데 금방 성공한 상황’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 만약 청자가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면, (27')과 같은 발화는 청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청자는 성공한 화자와 실패한 자신을 비교하며, ‘어, 너는 열었구나. 나는 진짜 힘이 없나보다. 너는 힘서서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27A)의 발화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모두 사라지는데, 화자는 뚜껑을 연 행위자로서의 자신을 은폐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감추는 동시에, 청자가 뚜껑을 여는 데 실패한 청자 자신과 성공한 화자를 비교할 상황의 발생을 일찍이 없애버린다. 더 나아가 뚜껑을 따 행위자가 사라진 것은 뚜껑을 따 행위가 아닌 뚜껑이 따진 결과 상황으로 문장의 초점을 이동시켜 다시 한 번 청자의 체면을 위협할 위험을 줄여준다. 이는 다음 예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8) (식사 준비를 마친 엄마가) 밥 다 됐어요. / 저녁 준비 됐어요.

(28') 밥 다 했어요. / 저녁 준비 다 했어요.

김명운(2009: 91)은 (28)을 화자가 피동구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주장하기 보다는 인지된 상황이나 변화된 사태의 경험자로서 그 상황이나 사태를 전달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는 문장이라고 설명한다.¹⁴⁾ 이는 곧 (28')

13) 김명운(2009: 91)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문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보다 명확한 발화 상황을 주기 위해 새로운 담화를 만들어 사용했다.

14) 김명운(2009)은 ‘밥이 다 됐어요.’라는 문장을 ‘누군가가 밥을 다 했어요.’라는 능동문과 대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동문이라고 본 것이다. 한편 해당 예문을 ‘되다’ 자체가 ‘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르다’라는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을 가진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 본고는 ‘게 되.’ ‘명사+되다’가 피동표현이므로,

과 달리 (28)에서는 ‘식사를 준비한’ 의지적 행위자인 ‘나’가 의도적으로 감추 어지며 밥을 하는 행위가 아닌 이미 밥이 다 된 상황이 부각되기 때문에, 문장이 공손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보는 본고의 분석과 다르지 않다.

발화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자. ‘엄마는 평소보다 좀 늦게 퇴근을 했다. 아이들이 배고플까 허겁지겁 저녁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은 다 방에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주방 근처에 있지 않았다. 준비를 다 마치고 엄마는 아이들이 빨리 나와 자신이 차린 맛있는 저녁을 먹었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늦어져 아이들이 밥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밥을 꼭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걱정이 되었다.’ 이런 경우 엄마는 (28)과 같은 문장을 발화할 것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라면 (28')보다는 (28)을 들은 경우 당장 식탁으로 가야할 것 같은 심리적 부담을 덜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28')처럼 밥을 준비한 행위가 부각되는 경우에는 밥을 먹으러 즉각 움직이지 않는 행위가 곧 밥을 준비한 주체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떨 수 있겠지만 (28)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사라짐으로서 청자는 이러한 부담에서 보다 자유롭다.

이처럼 피동표현은 청자에 대한 배려의 표현으로 선택되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동표현의 의미 효과는 부정어와의 공기관계, 그리고 부사어와의 공기관계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29) 가. *뚜껑이 못 열려.

나. 뚜껑이 안 열려.

(30) 가. *밥이 아직 못 됐어요.

나. 밥이 아직 안 됐어요.

일반적으로 ‘못’ 부정은 주체의 능력 부족에 의한 경우를, ‘안’ 부정은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을 나타낸다. (29가), (30가)는 피동표현이 쓰인 문장으로 여기서 주체, 즉 행위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송현정(1994: 321)은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동표현이 문장에서 주체의 능력을 부정하는 부정소인 ‘못’과 함께 쓰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같은 이유로 주체의 의지

여기에 포함된 ‘되다’ 역시 큰 틀에서 피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 (28)을 피동표현의 특성을 보여주는 예로 사용하였다.

부정인 ‘안’ 역시 피동표현과의 공기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게 되는데, 부정 소 ‘안’이 쓰인 (29나), (30나)가 문법적인 것은, 여기서 ‘안’부정이 주어의 의도나 의지의 부정이 아닌 ‘상황’ 전체에 대한 단순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송현정 1994: 321).

(31) 가. 엄마가 열심히 밥을 했다.
나. *밥이 열심히 됐다.

(32) 가. 뚜껑이 열렸어.
나. 뚜껑이 저절로/쉽게 열렸어.

또한 피동표현은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삭제된 문장으로 ‘열심히’와 같은 행위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사어와의 공기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한편 ‘저절로, 쉽게’와 같은 부사와 함께 쓰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데, 이는 피동표현이 청자를 배려하는 발화 방식으로 사용됨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32가)가 ‘뚜껑이 열렸다’는 상태 서술 시, ‘뚜껑을 열지 못했던’ 청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발화로 쓰임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때 (32나)에서처럼 행위자의 능력을 최소화하고, 상황적인 해석을 부가하는 부사어가 더해지면 청자에 대한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되고, 발화 또한 더욱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2. 화·청자 지향

(33) 그 색상은 다 나간 것 같네요.

(34) 그 색상은 다 나갔다고 하네요.

(35) 그 색상은 이미 다 나간 것으로 보이네요.

(33)~(35)¹⁵⁾에서 화자는 문장에서 제시되는 명제에 대해 간접적인 태도를

15) ‘네.’의 사용 역시 공손성과 관련되나 해당 예문들은 ‘네.’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요소인 ‘인 것 같-’, ‘다고 하-’, ‘으로 보이-’의 기능을 관찰하기 위함이다.

보인다. (33)은 ‘인 것 같.’의 추측표현으로 자신의 의견에 비확실성을 부여하고 있고 (34)는 간접인용을 통해 명제를 객관적인 사실처럼 전달한다. 한편 (35)는 ‘-으로 보이.’가 포함된 피동표현을 통해 화자 자신은 ‘그 색상의 제품이 다 나간’ 그 상황을 파악한 사람, 즉 사태의 경험자일 뿐임을 전달하고 있다.

만약 위의 표현들이 아니라, ‘그 색상은 다 나갔습니다’라는 보다 명료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제 내용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33)~(35)가 점원이 손님에게 하는 발화라면, 화자에게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청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심지어는 후자의 경우가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고도 볼 수 있다. 많은 때에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단언하거나 강하게 제시하기보다는, (33)~(35)와 같이 의도적으로 돌려 말하거나 모호하게 전달하려는 발화 방식을 선호한다.

위의 세 문장은 모두 ‘그 색상이 다 나갔다’는 사실을 점원이 손님에게 전달하는 경우이나, 문장에서 그러한 판단을 내린 주체인 점원, 즉 화자인 ‘나’(혹은 ‘저’)를 삭제함으로써, 명제의 내용, 즉 행위의 결과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간접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성 확보는 곧 화자 자신의 체면 유지 추구하고 긴밀히 연결된다.

(35)가 발화될 만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점원은 손님의 요청을 받고 창고에 가보거나, 재고를 정리한 문서를 확인한 후 그 색상이 다 팔렸다는 판단을 내린다.’ 그런 후에 (35)와 같은 발화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점원은 ‘그 색상은 다 나갔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손님이 매장을 꼼꼼히 살펴본 끝에 해당 색상을 직접 찾아낸 상황이 이어진다면 점원은 자신이 (35)와 같은 발화를 한 것을 매우 다행이라 여길 것이다. 점원은 (35)의 발화를 통해 일차적으로 ‘그 색상은 이미 다 나갔다’는 상황 전체를 부각시키고, 거기에 ‘보이다’라는 피동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자신의 주체적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요인에 의한 것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점원이 없다고 말한 제품을 손님이 직접 찾아낸다 해도, ‘그 색상이 다 팔렸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책임을 점원이 감당할 필요는 없게 된다. 점원은 ‘재고 관리 파일에는 다 빠진 걸로 되어있었는데 오류가 있었나보네요’ 등의 대답을 하며 곤란한 상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즉 (35)에서 피동표현은 분명 청자뿐 아니라 화자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6) 개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게 돼.

(37) 나는 개가 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36)은 ‘-게 되다’라는 피동표현을 통해 어떤 행위를 입음으로 인한 상태변화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변화는 주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난 것으로 한정되는 듯하다. (36)의 대당하는 능동문이라 할 수 있는 (37)에서 무엇인가를 ‘개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은 분명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만, (36)에서 ‘개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은 나의 의지가 아닌 외부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암시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36)은 화자가 자신의 체면 손상을 걱정하면서도 청자에 대한 배려 또한 신경 쓴 주의 깊은 발화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게 되다’와 같은 피동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직설적인 태도를 피하고 이를 통해 상대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 자신의 의지나 책임이 아님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만약 그 행위를 저지른 범인이 (36)의 화자가 추측한 바로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져도, 화자의 체면은 크게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36)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와 같이 해석이 자신의 주체적 의지와 반대됨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상황이 상황인지라’와 같이 판단이 상황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표현을 삽입해보면 이러한 의미 효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청자에 대한 배려 및 화자 자신의 책임 회피로서의 피동표현의 사용은 대화 상황뿐 아니라 문어, 특히 학술 텍스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의 주장을 밝히면서도 그것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의견을 보다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피동표현을 사용한다.

(40) 신분질서의 붕괴와 야담 장르의 성행 사이에는 소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1) 신분질서의 붕괴와 야담 장르의 성행 사이에는 소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 신분질서의 붕괴와 야담 장르의 성행 사이에는 소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학술텍스트에서 이러한 ‘-생각된다’, ‘-보인다’, ‘판단된다’와 같은 피동표현이 자주 쓰이는 것은 화자가 행위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술텍스트의 목적 자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논문, 연구서 등은 그 연구의 주체인 연구자가 아니라 그 연구의 ‘내용’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그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주체나 판단한 주체가 아니라 그 주장, 진술, 판단 자체에 주제적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학술텍스트에서는 행위자가 삭제되고 진술 전체에 초점을 부여하는 피동표현의 사용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동표현은 동사의 동작과 행위자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만듦으로써 명제에 보다 객관적인 성격을 부여하는데, 이 역시 학술 텍스트에 피동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¹⁶⁾ 제시되는 내용을 보다 객관성이 높은 사실로 전달하고자 할 때 주체의 주관성을 감추는 피동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학술텍스트에서 ‘명사+되다’, ‘-게 되다’, ‘-으로 보이-’ 등의 피동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화자의 책임 회피 의도와 함께 명제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피동표현의 의미기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이 글은 한국어 피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그간 사용의 측면보다는 언어 형식적인 양상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피동표현의 사용 동기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먼저 피동의 사용 동기를 크게 정보구조의 재배치와 화·청

16) ‘간접성’에 대한 논의는 (33)~(35)를 다시 참고하면 된다. 이외에 증거성의 ‘-더-’나, 인용형식 등도 명제에 간접성을 부여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자의 사회적 관계 유지라는 두 측면으로 대별하고, 이를 다시 행위자 축소와 행위 축소, 그리고 이에 대응되는 행위자 은폐와 상대성 부각이라는 세부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어서 글의 후반부에서는 피동표현에서의 공손 전략의 양상이 청자에 대한 것과 화·청자 모두에 대한 것,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남을 구체적인 발화 상황들을 가정해가며 살펴보았다.

이러한 본고의 논의는 결코 기존의 통사론 및 의미론에서의 피동문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동표현의 사용 기제를 밝히는 일이 피동의 의미를 밝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사용자들이 특정 상황에서 피동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피동이 가지는 어떤 특징적인 의미 때문이며 그 언어표현의 사용 동기를 밝히는 것은 그 표현의 의미를 매우 세밀한 것까지 소상히 밝히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글에서는 한국어 피동표현의 사용 동기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피동이라는 의미 범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이 글은 한국어 피동표현의 사용 동기를 언어 사용자들의 직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화하였지만 실제 언어 사용에서의 용례를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추후 실용례를 바탕으로 한 계량적 연구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이 글의 의미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먼저 이 글은 앞서도 언급했듯 피동이 의미·화용 범주로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는 그간 통사·의미 차원에 집중되어 있던 한국어 피동에 대한 연구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연구를 더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 글은 공손표현이 화·청자 사이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해당 분야에서 화자를 지향하는 표현과 청자를 지향하는 표현을 나누고 이를 면밀히 따져보는 연구들이 부족했음을 인식한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피동표현에서의 공손성의 양상을 청자 지향과 화·청자 지향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는 이후 다른 여러 한국어의 공손표현들의 의미 특성 및 사용 동기를 밝히려는 연구들에서 활발하게 재생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기타무라 다다시, 『한국어 피동 표현 연구』, J&C, 2004.
- 김명운, 「현대국어의 공손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차균, 「국어의 사역과 수동의 의미」, 『한글』 168, 1980, pp.5-49.
- 남수경, 『한국어 피동문 연구』, 월인, 2011.
- 박성종, 「국어 피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송현정, 「국어 피동 담화 특성 연구」, 『선청어문』 22, 1994, pp. 303-334.
- 유동준, 「국어의 능동과 피동」, 『국어학』 12, 1983, pp.193-212.
- 유혜령, 「국어의 형태통사적 공손 표지에 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41, 2010, pp.205-226.
- 이정택, 『현대 국어 피동 연구』, 박이정, 2004.
- 이향천, 「피동의 의미와 기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임홍빈, 「國語 被動化의 意味」, 『진단학보』 45, 1978, pp. 94-115.
- 전영철, 「소위 이중피동문에 대하여」, 『언어학』 52, 2008, pp.79-101.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61.
- BROWN, Penelope; LEVINSON, Stephen C.,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GOFFMAN, Erving; KIHM, Alain, *Les rites d'interaction*. Paris: Ed. de minuit, 1974.
- KERBRAT-ORECCHIONI, Catherine, *Les interactions verbales*, tome II, Paris, A. Colin, 1992.
- JESPERSEN, Otto,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 New York: Allen: Holt, 1924.
- LAKOFF, George, "Linguistic gestalts", *In: Papers from the...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 Soc. Chicago Ill*, 1977, 236-287.
- LAKOFF, Robin,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In C. Corum, T. Cedric Smith-Stark, & A. Weiser (Eds.), *Papers from the 9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3, 292-305.
- LEECH, G. N.,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1983.